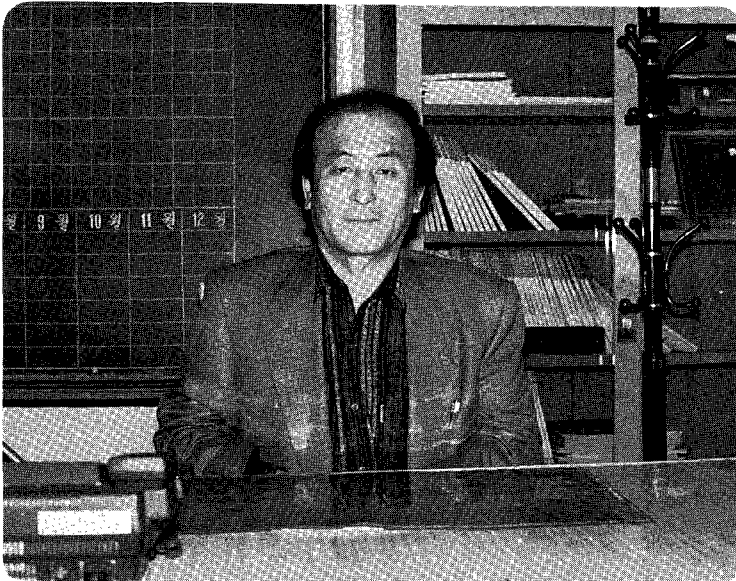


# 이익을 공유해야 조직 활성화된다.

□ 취재/이인수 기자



△김상길 분회장

해 있어 운송면에서 편리하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들은 계란을 구입하기가 오늘날과 같이 쉬운편은 아니었다.

따라서 몇백수 내지 몇천수를 사육하는 것이 타업종에 종사하는 것보다 수익면에서 좋아 인근주민들이 양계업에 동참하면서 경기도 광주일대의 양계업은 점차 전업화, 대형화 농장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지난 '84년 양계사육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일정한 조직을 구심점으로 하여 "몽쳐야 한다"는 견해가 일치되어 회원 1인당 30만원, 월회비 2만원씩 주머니를 털어 만든 조직이 현 광주지구 산란계분회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 회원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새로

## 본회

경기도 광주 산란계 분회.  
버스를 타고 국도를 따라 성남을 거쳐 외곽도로에 들어서면 길가의 개나리, 벚꽃들이 피어있는 사이로 계사들이 눈에 띈다.

약 1시간 소요되어 도착한 경기도 광주군 역리에 위치한 광주산란계분회.

'70년초만 하더라도 대부분 주위에 있는 농가들이 영세한 편이었고, 사육수수도 대개 3백수 내지 5백수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주종을 이루었고, 대략 1천수만 사육하더라도 생활이 가능했던 시대였다.

특히 경기도 광주지역은 대량소비처인 서울과 인접



선출된 김상길 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석훈, 박동원 부회장, 서성택 총무가 발벗고 나서 분회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여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월 17일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회원상호간의 침묵도모와 아울러 각종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계란가격전망, 강제환우 시기결정여부, 적절한 노계도태시기 등 각종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란가격 변동시 유선망을 통하여 즉시 알려줌으로써 회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김상길 분회장은 회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현재 회원들의 사육수수는 약 80여만수에 이르고

있는데 적게는 만여수에서 많게는 5만수이상 사육농가들도 3~4명에 이르고 있어, 이곳에서도 최근 양계사육 규모가 전업화, 대형화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규모가 대형화 됨에 따라 과거 공급물량이 부족한 시기와는 달리 생산과잉과 아울러 인건비 상승, 계분처리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이다. 김상길 분회장은 이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강조하고 시설자동화와 아울러 자가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회원들이 생산한 계란은 선별과정을 거쳐 조합의 집하장에 납품도 하고, 상인을 통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통에는 별다른 어려

움이 제기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상길 분회장은 '73년 양계천수로 시작하여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최근에는 “과거 경력만으로 양계업을 경영하는 것은 어려운 경영방법”이라고 강조하고 항상 처음 양계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연구·노력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 광주농장, 선린농장에 14,000평규모에 5만수정도 양계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양계인이다. 앞으로 광주채란분회를 10명 안팎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소비촉진홍보사업에 다 같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회원들이 더욱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관심이 모아질 광주지역 산란계 분회는 우리나라 양계산업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다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양계**